

# 범죄 악용 로드뷰...길찾기 대신 범행장소 찾기

### 포털사이트 위치찾기 서비스 52차례 절도 빈집털이 활용 이용 범죄 잇따라 대책 시급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로드뷰' 서비스가 절도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용자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게하는 등 편의를 위해 개발돼 호응을 얻고 있는 포털사이트 서비스들이 일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당양의 한 농가에 들어가 현금 70만원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올 4월 까지 광주·전남·전북 일대에서 총 52차례에 걸쳐 1억 400만원 가량의 절도행각을 벌였다.

A씨를 검거, 수사했던 곡성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로드뷰 서비스를 이용해 범행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외에도 인공지능과 항공기를 이용해 촬영된 사진을 볼 수 있는 '스카이뷰' 기능을 이용해 비교적 주택이 많지 않고 인적이 드문 농촌마을을 범행대상지역으로 삼았다.

범행대상지역이 선정되면 이후 로드뷰를 이용해 주택 담이 낮은 곳, 밤범용 CCTV 설치되지 않은 곳 등 범행이 용이한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다.

A씨는 농촌지역의 경우 낮 시간대 농사일로 집이 비워져 있고, 방범이 취약하다는 점을 노렸다.

A씨는 범행 이후 농로를 이용해 범행 지역을 벗어나 버스터미널이나 택시승강

장까지 이동했는데, 이 역시도 로드뷰를 통해 사전에 철저히 계획했다.

앞서 지난 2017년에도 전국을 무대로 절도행각을 벌인 B(57)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 또한 로드뷰를 이용해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에서 10차례 등 전국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B씨의 범행 대상은 단일세대 아파트였다.

그는 최고층 가구는 주위에서 자신의 범행을 쉽게 볼 수 없고, 옆집 주민이 없어 들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여기에 로드뷰가 이용됐다. B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로드뷰 기능을 이용해 전국 아파트 최고층 가운데 옆집이 없는 단일세대를 물색했다.

최고층에 단일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내부에서 봤을 때 건물구조가 한 층에 두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곳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용했다.

직접 가지 않고도 마치 그 일대를 찾아볼 수 있는 로드뷰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지난 2008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다음뿐만 아니라,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구글에서도 비슷한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로드뷰는 이 중에서도 타 포털사이트 대비 최신의 길 정보를 제공하는 업데이트가 자주돼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뷰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다음 로드뷰 서비스 관계자는 "현재 일반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얼굴과 번호판을 가리고 있다. 하지만 로드뷰 서비스 제공 목적상 도로와 건물 등은 따로 가리지 않고 있지만, 로드뷰의 범죄이용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교육부, 내년 교사 정원 대폭 감축안 통보 광주·전남교육청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발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로 내년 도 광주·전남 지역 공립 초·중등 교사 정원을 대폭 감축하기로 해 반발이 예상된다. 사·도교육청은 예년 수준으로 교사 정원을 추가 배정해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며 협의에 나서고 있다.

29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내년도 광주지역 공립 초·중등 교사 정원을 올해보다 56명, 중·고등 교사는 28명을 각각 축소하는 가배정 방안을 최근 통보해 왔다.

전남은 공립 초·중등교사의 경우 올해에 비해 78명 증원되지만, 중·고등 교사는 무려 224명이나 크게 감축되는 방안으로 가배정됐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일선 학교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 정원 감축은 과밀학급 증가로 이어져 위기 대처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 광주에 1학급당 25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초등학교만 11개 학교에 달하는 상황에서 교사 정원 감축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교사 정원 감축 시 수업만 하는 교과전담 교사 배치가 줄어들어 수업 연구 등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수업의 질적인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퇴직 교원이 소수인 광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교육부의 이번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방침에 따른다면 당장 내년도 광주·전남 신규임용 교사 선발 인원이 초·중 모두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 교사를 희망하는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도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예년 수준으로 교사 정원을 추가 배정해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이어서 사·도간 형평성을 고려해 교원 정원을 가배정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원 정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연말 쯤 확정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북구 자영업자지원센터 업무 개시 29일 광주 북구청 민원봉사실 내 자영업자지원센터 업무개시 첫날에 문인 북구청장과 표범식 북구의회의원, 소상공인들이 담당직원으로부터 센터 현황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다. '북구 자영업자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광주 북구 '상생페스타' 4개 분야 참가자 모집

광주시 북구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연활동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9월과 11월에 열릴 '2020 북구 문화예술인 상생페스타'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으며 음악공연, 미술 작품 전시, 공예·공산아트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참가분야는 단체공연·개인공연·미술·체험 등 4개 분야이며, 참가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북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오는 31일까지 문화예술과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북구는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하는 '찾아가는 발코니 버스킹'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모집한다.

발코니 버스킹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행사로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주민들은 공동주택 내 놀이터, 광장 등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각 가정에서 관람하게 된다. 버스킹 참여는 다음달 7일까지 북구청 문화예술과(062-410-8479)로 신청하면 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조선대산학협력단 '장애인 드론 창업교육'

수행기관 선정...50명 교육 참여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장애인 대상 드론 특화교육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장애인 맞춤형 특화교육 수행기관'에 선정됐다.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7일(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장애인 맞춤형 창업특화교육'은 장애인이 창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특화교육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성공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다.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장애인의

장점으로 꼽는 집중력을 활용한 드론 응용 특화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과정'과 '항공촬영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대상은 만 14세 이상의 장애인이며,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20명과 항공촬영 교육과정 30명으로 총 5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드론 특화교육의 책임교수인 김영심 교수(SW중심대학사업단)는 "진취적 의욕을 갖는 장애인이 남들보다 앞선 첨단기술을 익혀 차별화된 창업을 한다면 성공확률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남구, 불법 광고물과 전면전 나섰다 도시계획과 전직원 단속 동원

광주 남구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면전에 나섰다.

남구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야간 시간대와 현수막을 떼고 붙이는 게릴라 방식을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 광고물을 내거는 광고물 대행업체와 광고주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키로 했다.

남구는 29일 "고질적인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겨운 시기에 이윤 창출을 위해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는 광고 대행업체와 광고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태료를 부과하고, 생계를 위해 현수막을 내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및 계도 조치하기로 했다.

먼저 남구는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 전 직원을 소집해 조만간 정비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 동구 경로당 비대면 방식 전환 운영

광주 동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휴관중인 경로당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동구는 장기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어르신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해소 등 육체·정신적 건강을 챙기기 위해 경로당 프로그램을 정비해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24일 중북을 맞아 대한노인회광주동구지회가 준비한 삼계탕을 개별 포장해 어르신 택으로 직접 방문해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비대면에 따른

건강문제를 쟁했다. 앞으로 동구는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를 위한 반려식물 나눔, 결식우려 어르신 대상 밑반찬 나눔 등 경로당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방식으로도 전환해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계층별 비대면 프로그램을 모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